

재취업 활동 月2회로... 실업급여 다시 깎아진다

고용부, 다음달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코로나 여파에 기준 완화됐지만... 일상회복 따라 정상화 여학생구구직활동 인정 안 해... 취업특강 인정횟수 제한

코로나19 영향으로 간소화된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정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 재취업활동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재취업활동 범위는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이행 조치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의결된 바 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재유행 등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질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간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왔다.

모든 수급자에 대해 전체 실업인정 기간 내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 내용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회복에 따라 실업인정 및 재취업활동 기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백미나기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취업활동 횟수와 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

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 한다. 반복·장기수급자도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난다.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도 제한된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이나 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정상화 초기인 만큼 다음 달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월부터 적용한다.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정리를 하고 있다. 이종원대기자

소상공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3개월 추가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은 2020년 3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19만2837개의 보험료 7657억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7~9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건설·별목적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7~9월에 법정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신청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고,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 처분 집행이 내년 1월10일까지 유예된다.

납부 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을 통해 최대 2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이블리, 올 여름 패션 트렌드 키워드 'F.R.E.E' 선정

크롭티 등 짧은 상의 검색량 전년비 2.5배 ↑ 자유분방한 매력 돋보이고 화려한 패션 인기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가 올 여름 패션 트렌드 키워드로 'F.R.E.E'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F.R.E.E'는 △Focus on Y2K(2000년대 초반 패션에 주목) △Ripped Jeans & Cutout Tops(찢어진 청바지와 컷아웃 스타일) △Edge point(특별함을 더하는 포인트) △Emerging Knitwear trend(니트 소재 트렌드 급부상) 단어의 조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치고 위축됐던 과거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한 매력이 돋보이는 과감하고 화려한 패션을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개성 있게 표현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ocus on Y2K(2000년대 초반 패션에 주목)

지나해부터 시작한 Y2K 패션 열풍이 이번 여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상의는 짧게, 하의는 넓은 통이나 평퍼짐한 와이드팬츠 스타일링이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다. 크롭·크롭티·크롭톱 등 짧은 상의 5월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하며 20만건을 기록했다.

'와이드 팬츠'도 단일 키워드 검색량만 지난달 10만건에 달한다. 에이블리 연계 상품 구매 데이터 분석 결과, 크롭 상의를 구매하는 유저들이 와이드 팬츠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Ripped Jeans & Cutout Tops(찢어진 청바지와 컷아웃 스타일)

옷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낸 듯한



디자인으로 과감함을 더한 패션 스타일도 강세다. 디스트로이드 데님을 의미하는 '찢청(찢어진 청바지)'은 전년 대비 50%가량 많이 검색됐고 무릎 부분만 살짝 트임이 있던 과거 대비 허벅지, 바지 뒷면까지 상품 스타일도 다양해졌다.

어깨·등·골반 등 노출을 포인트로 준 '컷아웃(cut-out)' 검색량도 5배 넘게 증가했다. 페스티벌 콘서트 등 외출 기회가 늘며 과격적인 커팅 패션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가슴 밑 라인의 컷아웃 디자인을 의미하는 '언더붐(underboob)' 패션도 인기가 있다. 블랙핑크 제니가 수현아 등 셀럽을 중심으로 떠오른 '언더붐'은 에이블리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높은 관심을 얻었다. 언더붐 스타일은 일상복보다 비키니 수영복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Edge point(특별함을 더하는 포인트)

같은 옷이라도 프릴·퍼프·목라인 디테일 등으로 강조한 스타일도 인기가 있다. 라운드넥·브이넥뿐 아니라 스퀘어하트

등 독특한 목라인 디자인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트넥' 검색량은 전년 대비 약 65% 증가했고 하트와 스퀘어 모양을 결합한 모코블링의 '하트스퀘어넥 반팔 티셔츠'는 에이블리 내에서만 5만장 이상 판매됐다.

Emerging Knitwear trend(니트 소재 트렌드 급부상)

올여름은 옷도 가방도 '그물' 열풍이 예상된다. 흔히 겨울에 많이 입는 '니트' 소재가 올여름 대표 상품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에이블리 '니트'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다. 특히 코바늘로 뜨개질한 듯한 '크로세(Crochet)' 패션을 중심으로 니트웨어 트렌드가 뜨고 있다.

크로세는 여름철 대표 소재인 린넨보다 크고 성긴 짜임새로 한여름 더위에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다. 5월 한 달간 에이블리 내 '크로세' 검색량은 3배 증가했고, 크로세 소재를 활용한 상품도 '가디건' '조끼' '나시' 등으로 다양해졌다.

새로운 에너지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